

그는 별종의 별이 됐다... 최고 권위 전영오픈 '우승'



세계 1위 안세영, 왕즈이 제압
명실상부한 최강자 입증 계기

초반 허벅지 통증 투지로 극복
2·3세트 집중력 발휘 '역전승'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로 한국 배드민턴의 현재이자 미래인 안세영(삼성생명)이 1899년에 시작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배드민턴 최고 권위있는 대회로 평가받는 전영오픈을 제패하며 명실상부한 최강자이자 원탑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세계랭킹 맨 꼭대기에 자리한 안세영은 17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왕즈이(중국·2위)를 2-1(13-21, 21-18, 21-18)로 누르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32강에서 가오팡제(중국·15위), 16강에서 커스티 길모어(스코틀랜드·33위), 8강에서 천위페이(중국·13위), 4강에서 아마구치 아카네(일본·3위)를 차례로 제압한 안세영은 왕즈이마저 제압하고 올해 들어 '20연승'을 달렸다.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올레량 마스터스에서 차례로 우승한 안세영은 전영오픈에서도 2년 만에 시상대 맨 위에 서서 올해 국제대회 '4개 연속 우승'의 위업을 이뤘다.

이번 대회 4강전 아마구치와의 2게임 도중 허벅지 통증을 호소한 안세영은 이날 다소 무거운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 말부터 테이핑 없이 나타나고 집적인 부상을 털어냈음을 알린 안세영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이날 모처럼 허벅지에 테이핑을 한 채로 경기에 나섰다.

1게임은 상대가 웃었다. 안세영은 부상 여파로 민첩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별상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13-21로 왕즈이에게 1게임을 내줬다.

하지만 2게임부터는 달랐다. 안세영 끈질긴 수비로 왕즈이를 당황하게 했다. 79차례나 이어진 랠리 끝에 7-6으로 앞서며 분위기를 바꾼 안세영은 특유의 몰렘없는 수비를 여러 차례

레 선보이면서 18-18,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후 42회가 이어진 랠리를 스매시로 마무리해 19-18로 역전한 안세영은 연속 득점으로 2게임을 따냈다.

체력전 싸움이 이어진 3게임 역시 안세영의 차지였다.

경기 내내 안세영의 질실 수비를 상대하면서 체력이 떨어진 왕즈이도 범실을 쏟아냈고, 막판까지 이어진 점진 승부에서 안세영의 집중력이 빛났다.

18-18로 팽팽했던 3게임 막판 체력이 떨어진 왕즈이가 3연속 범실을 저지르며 안세영의 짜릿한 역전승이 만들어졌다.

2년 전 안세영은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27년 만에 여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아마구치에게 준결승에서 1-2로 패해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남복식 서승재·김원호 전영오픈 우승 정재성·이용대 이후 13년 만에 쾌거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에 이어 남자 복식의 서승재와 김원호(이상 삼성생명)도 최고 권위 대회 전영오픈 우승을 달성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16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남자 복식 결승에서 인도네시아의 레오 톨리 카르나도-바가스 마울라나 조를 2-0(21-19, 21-19)으로 제압했다.

한국이 전영오픈 남자복식에서 우승한 건 2012년 이용대와 정재성 이후 13년 만에이다.

2012년 선수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던 이용대는 이번 대회 초빙 코치로 대표팀과 동행해 지도자로서 우승의 기쁨을 또한 번 맛봤다.

앞서 말레이시아오픈과 독일오픈을 제패한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들어 3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연합뉴스

두산건설, 신지애와 후원 계약

두산건설은 최근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통산 상금 1위로 올라선 신지애(사진)와 서브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지애는 오는 21일 개막하는 JLPGA 투어 V포인트 SMBC 레이디스 토너먼트부터 상의 왼쪽 가슴 부분에 두산건설 로고를 달고 경기에 나서게 된다.

신지애가 한국 기업 후원을 받는 것은 11년 만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거쳐 200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건너갔다가 2014년부터는 일본을 주 무대로 삼은 신지애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 투어에서 65차례나 우승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상금왕에 올랐다.

신지애는 후원 계약식에서 "지난해 KLPGA 투어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에 출전하며 오랜만에 국내 팬들과 좋은 추억을 나눴는데 이렇게 후원으로 인연을 이어가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통산 65승을 거뒀는데 두산건설이 올해로 65주년이 됐다고 하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 오랜만에 한국 기업 로고와 함께 시즌을 치르는 만큼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이범호 KIA 감독 "5선발은 김도현 확정"

취소된 SSG전 앞서 발표...시범경기 평균자책점 1.23 활약
"황동하는 불펜투수로...길고 짧은 이닝 모두 소화할 예정"

KIA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공석이었던 5선발 자리 투수를 김도현으로 낙점했다.

이범호 감독은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SSG랜더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앞서 "(김)도현이를 5선발로 쓰려고 한다. (황)동하는 톱탑리피어나 6회 이겨야 하는 게임에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 시즌 KIA의 1~4선발 로테이션 자리는 이미 확정됐다. '에이스' 제인스 네일, 새 외인 투수 아담 윌러, '대투수' 양현종, 윤영철이 굳건히 자리 잡았다.

하지만 5선발 자리가 공석이었다. 2021년 이후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했던 이의리가 지난해 팔꿈치 인대결합 수술(토미존)을 받은 뒤 재할증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대체 선발로 뛰었던 김도현과 황동하가 5선발 후보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해 네일과 윌 크로우, 이의리, 윤영철이 부상으로 빠졌을 당시 선발로 공백을 메운 바 있다.

김도현과 황동하는 올 시즌 스프링캠프부터 꾸준히 몸을 만들면서 연습 경기를 소화, 선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다. 이후 시범경기에서 김도현은 2게임 7.1이닝 1승 1홀드 2실점(1자책) 평균자책점 1.23으로 활약했다. 황동하는 2게임 6이

닝 1승 3실점(1자책) 평균자책점 1.50으로 호투했다. 두 선수 모두 기량은 충분했기에 이 감독은 지난 16일 시범경기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자리를 확정 지었다.

이 감독은 "(황)동하는 짧게도 길게도 쓰려고 한다"며 "선발 중 누군가 안 좋아진다면 (황)동하를 선발로 써야 될 것 같다.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김도현과 황동하는 지난해 부상으로 신임을 잃었던 KIA를 구원했다. 황동하는 25경기에서 103.1이닝을 던져 5승 7패 평균자책점 4.44를 기록했다. 김도현 역시 35경기에서 4승 6패 3홀드 평균자책점 4.62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우위를 가리기 힘든 활약이었다.

이 감독은 "둘 다 젊은 선수들이고 팀에서 해줘야 할 게 많다. (누군가) 선발에 탈락하게 되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기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결정하려고 미뤘었다"며 "다만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황동하에게) 중간에서 열심히 던져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다. 정말 고맙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동하는 야구에 대한 마인드가 좋은 선수다. 캠프에서도 웨이트장에서 끝까지 남아 훈련을 소화했다"며 "스피드도 충분히 늘 것으로 보인다."

변화구도 잘 던지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또한 좋다. 어느 자리에 가도 좋은 선수여서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시즌 정규리그는 오는 22일 개막한다. 개막전 엔트리는 최정예 멤버로 구성되는 만큼, 이 감독은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이 감독은 "외야는 수비랑 주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야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며 "스타팅 멤버에 공백이 생겼을 때 타격을 절하는 선수가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배려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 잡는 선수가 엔트리에 승선하는 것이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다. 프로는 직업으로 하는 곳이다"며 "실력이 있는 선수를 엔트리에 넣는 게 당연하다. 팀은 성적을 내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포커스를 실력에 맞춰서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A의 개막전 선발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 네일과 양현종이 NC다이노스와의 개막 2연전에 등판하고, 키움과의 주중 3연전에는 윌러-윤영철-김도현 순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AI페퍼스, 시즌 최종전서 유종의 미 거둔다

오늘 오후 7시 광주페퍼스타디움서 현대건설전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시즌 최종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AI페퍼스는 18일 오후 7시 광주페퍼스타디움(영주체육관)에서 현대건설 배구단과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최종 경기를 치른다. 앞서 지난 14일 AI페퍼스는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27, 17-25, 19-25)으로 패배했다. 그 결과 11승 24패로 승점 35를 유지했다. 이후 최하위 경쟁을 펼쳤던 GS칼텍스는 16일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11승 24패 승점 36을 기록, 리그 6위로 올라섰다. 결국 AI페퍼스는 승점 1점차로 7위로 하락했다.

올 시즌 AI페퍼스는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전반기에 구단 역대 최다승리와 최다승점을 경신한 데 이어, 후반기에는 창단 첫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했다. 2021-2022시즌(3승 28패·승점 11), 2022-2023시즌(5승 31패·승점 14), 2023-2024시즌(5승 31패·승점 17)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다.

하지만 시즌 막판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주

출했다. 매 시즌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AI페퍼스가 올 시즌 구단 역대 최고 순위까지 갈아치우기 위해서는 시즌 최종전인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상황에서 맞붙을 상대는 리그 3위 현대건설(20승 15패 승점 63).

현대건설은 외인 모마를 주축으로 한 공격력이 매서운 팀이다. 모마는 리그 득점 4위(701점), 공격성공률 4위(40.97%) 등 각종 지표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했다.

다만 현대건설은 최근 경기에서 주전 위파위가 왼쪽 전방심사인데 파열 및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다. 남은 정규리그는 물론 포스트시즌 또한 될 수 없는 상황이다.

AI페퍼스가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한다면 오는 20일 흥국생명과의 시즌 최종전을 치르는 GS칼텍스의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올 시즌 슬한 새역사를 작성한 AI페퍼스가 이번 현대건설전에서 승리하며 역대 최고 순위 경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ACLE 8강서 알힐랄과 맞대결

대진 추첨 진행...4강 진출 시 상금 60만 달러 획득



아시아 무대에서 새역사를 쓴 프로축구 광주FC가 ACLE 8강전에서 사우디의 맹주 알힐랄과 맞붙는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FC 하우스에서 2024-2025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대진 추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경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8강에서 알힐랄을 상대하게 됐다.

알힐랄은 사우디의 오일 머니를 토대로 유럽의 주요 구단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강력한 스쿼드를 갖췄다.

알렉산드라 미트로비치, 주앙 칸셀루, 칼리두 콜리발리, 후벵 네베스, 아신 부누, 세르게이 밀린 코비치사비치 등 이름값 높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했다.

ACLE는 8강부터 동서로 구분된 권역을 허물고 동·서아시아팀들이 서로 맞붙는다. 다음 달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중립지역인 사우디 제다에서 8강부터 결승전까지 단판 승부로 우승팀을 결

정한다.

광주는 첫 날인 25일 알힐랄과 맞붙는다. 광주가 알힐랄을 꺾기 된다면 알아흘리(사우디)-부리람나이트(태국) 경기의 승자와 다음 달 29일 4강전을 치른다.

이 밖에 8강 대진은 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알나스르(사우디), 가와사키 프론타레(일본)-알사드(카타르)로 결정됐다.

ACLE 4강에 진출하는 팀은 60만달러(8억7000만원)를 상금으로 받는다.

특히 결승 무대에만 올라가면 상금 규모가 크게 오른다.

준우승팀에는 400만달러(58억원)가 돌아간다. 우승팀 상금은 1000만달러(145억2000만원)다.

한편 역대 사·도민구단 중 ACLE 무대에서 8강에 오른 건 광주가 최초다.

광주와 함께 ACLE에 나선HD와 포항스틸러스가 리그 스테이지에서 탈락한 가운데 광주는 아시아사 팀들과 맞붙는 8강까지 진출하며 K리그의 자존심을 살렸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